일단 졸업 직후 진로와 관계를 이용해 글을 전개하지 않을 것을 미리 말하고 가야겠다. 통계학은 나의 평생에 걸쳐 도움을 줄 스킬이긴 하지만 특정 직업 또는 과목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의 관심사는 선견지명이다. 정확히는 과거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나름의 요약과 더불어 이 학습서가 나에게 교양인문서로 다가왔던 이유도 설명하겠다.

주인공인 동방지수는 감으로 집안 비즈니스인 음식점을 경영하다 경영난을 겪는다. 감에 의존하는 경영방식이 안쓰러웠던 리신호 수는 그녀에게 데이터 수집과 분석, 결론도출의 방법을 알려주면서 결국 쓰러져가던 음식점과 상가를 재건하는 이야기이다.

이 책에서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숫자는 객관적이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또한 숫자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으므로 숫자를 이용해 어떤 사실을 공유할 수도 있다.”

숫자에서 사실을 도출하는 단계는 다음 4단계이다.

1. 어떤 일에 막연한 인상을 받는다.
2. 그것을 숫자로 표현하고 살펴본다.
3. 2단계의 숫자가 1단계에서 받은 인상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4. 3단계를 검증하기 위해 통계학을 이용해 산출한다.

이 책은 전형적인 만화 학습서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교양인문서로 느껴졌다. 책에서 리신호 교수가 감으로만 판단하는 동방지수에게 일침을 가했을 때 나 또한 일침을 맞은 것 같았다. 나름 편향을 고려했다고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그것 또한 내 가슴이 만들어낸 편향으로 보정한 것이었다. 내 가슴과 머리가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는 숫자로 결정했을 때야 말로 모두가 따르는 통솔력이 나오고 선택의 이유가 된다. 앞으로 많은 선택을 할 것이다. 앞으로 어른이 되면서 나 자신을 위해, 누군가의 노후자금을 위해, 누군가의 미래가치를 위해 선택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그때마다 정답 없는 선택에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이유를 만들어 최고의 선택을 하고 후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5년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의 멋진 사회 데뷔 이후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때문에 사람들은 백전불패의 데이터경영에 관심이 많아졌고, 규모가 큰 사업체는 데이터 분석가를 사내에 들여 경영자문을 요청한다. 그러나 당분간(5~10년) 과도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분석가 고용이 부담스러울 것이고 외부 데이터 경영자문의 수요가 있을 것이다. 위의 논리대로 경영자문 사업을 해도 될까? 통계학이 알려줄 것이다.

얼마 전 티비에서 사람들의 비일관적이며, 이성적이지 못한 선호현상에 대해 봤다. 선호 역전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게임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다. 초기